


보 도 자 료		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
배포 일자	2020. 09. 08.(화) / 총 3매 (본문 2, 붙임 1)	
자료 제공	•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 - 김미경 실장 (051-797-4381) - 송주혜 사무원 (051-797-4388)	
배포 부서	•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(051-797-4381, 4384)	
보도 일시	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.	
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, www.kmi.re.kr		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과 국립해양박물관, 해양인문학총서 「바다를 열다」 출간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, 원장 장영태)은 국립해양박물관(KNMM)과 공동으로 2019년도 해양인문학프로그램 <해양로에서 바다로 - 바다를 열다> 운영의 결과물인 <바다를 열다>를 최근 출간하였다.

해양인문학프로그램 <해양로에서 바다로>는 2016년부터 매년 해양클러스터 소속 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양인문학에 대한 지식공유와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. 이번에 출간하게 된 <바다를 열다>는 <바다를 읽다(2016)>, <바다를 여행하다(2017)>, <바다를 맛보다(2018)>에 이은 해양인문학총서 제4권으로 2019년 프로그램의 주요 강연 내용을 담고 있다.

1장 ‘일본침략 그리고 조선의 개항’은 조선의 개항과 더불어 당시 조선과 일본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, 조선의 개항을 둘러싼 역사적 배경을 통해 오늘날 한일관계와 세계화 시대 한반도의 미래를 되짚어 보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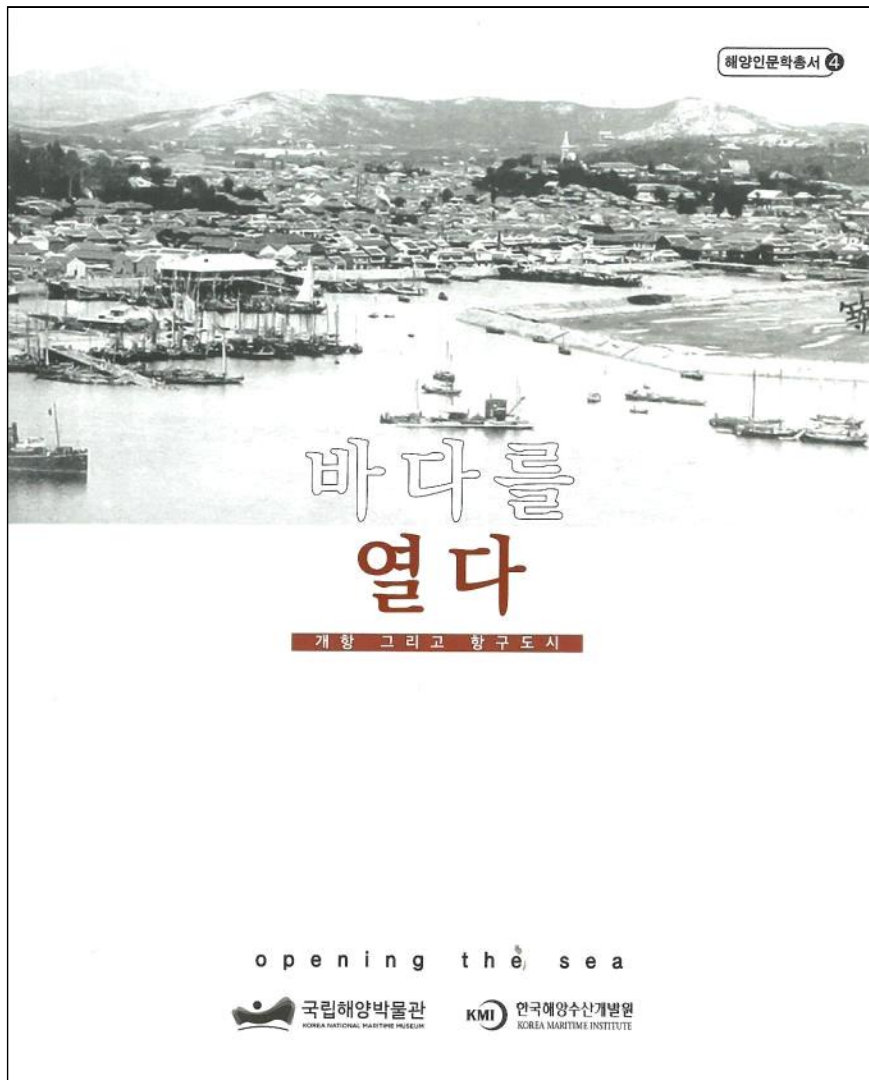
2장 ‘개항 그리고 항구도시’에서는 개항 전후 부산항의 역사와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부산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구도시인 인천 그리고 아시아 대표 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항구도시 역사를 살펴보았다.

<바다를 열다>는 일본침략과 조선의 개항, 개항과 항구도시를 주제로 바다를 마주한 한국과 일본의 해양 전략 차이가 가져온 결과를 비교하고, 외세의 침략으로 개항 및 근대화가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도시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.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항과 개항 후 항구도시 형성에 감추어진 이면의 이야기와 역사적 사실을 담아내며 개항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.

※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 송주혜 사무원(051-797-4388), library@kmi.re.kr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붙임1> <바다를 열다> 표지 이미지

<붙임1> <바다를 열다> 표지 이미지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은 국립해양박물관(KNMM)과 공동으로 2019년도 해양인문학프로그램 운영의 결과물인 <바다를 열다>를 최근 출간하였다.